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제301호 2024년 10월 6일(나해) 연중 제27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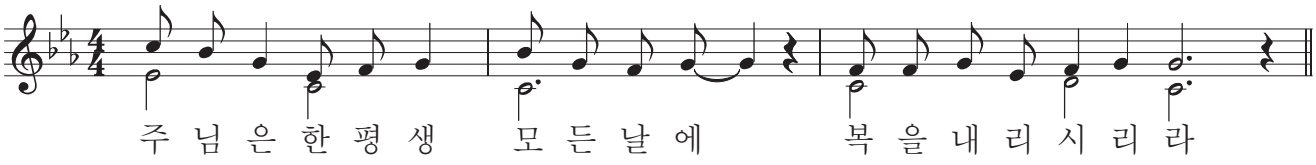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 1,31)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 청다리도요사촌(*Tringa guttifer*)

제 1 독 서 창세기 2,18-24

화 답 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손상오 신부 곡



제 2 독 서 히브리서 2,9-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 10,2-16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발행인 권혁주 | 발행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 054)858-3114~5 | www.acatholic.or.kr | sa3119@nate.com

그리스도와의 사랑에 참여하는 혼인

봉화 본당 주임
사공균 알로이시오 신부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인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르 10,7~9)

서로 모르는 남녀가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높은 이혼율로 인해 혼인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사적 지위까지 올려놓은 혼인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혼인에 하느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인을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혼인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정을 이루어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 함께 하시어, 모든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정에 하느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리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으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길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의 자리를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느님의 자리를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도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이 바로 하느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거룩한 가정을 인간의 힘으로 파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누구보다 남녀 간의 혼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신랑에 비유되고, 교회는 신부로 비유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부의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단일한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바치시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는 자신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하느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며 서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대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당신을 넘겨주신 그리스도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교회가 화려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나무랄 데 없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남편도 자기 몸과 같은 아내를 사랑하고 당신의 지체를 돌보는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돌보고 보살피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한 몸, 한 영이 되게 하소서."(에페 5,21 이하; 서인석)

지켜주세요 <청다리도요사촌>

표지 사진 설명

청다리도요사촌은 몸길이가 약 29~32cm로 다리는 노란색이며 머리, 등, 날개는 회색입니다. 다른 도요새와 비교했을 때 몸에 비해 다리가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길고 굵은 부리는 살짝 위로 휘어져 있으며 끝은 검고 나머지 부분은 노란색을 띱니다. 매우 드문 나그네새로 봄과 가을에 적은 수가 서해안 일대의 갯벌이나 강 하류에 도래합니다. 먹이가 보이면 빠르게 뛰어가 사냥합니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사할린, 캄차카반도 등지에서 번식하고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새입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 여행 중이거나 객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에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던' 사람들을 의인으로 분류하면서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의성본당- **정규석 프란치스코**

※ 2024년「가톨릭안동」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 다룹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참고하여 묵상글을 담습니다.

런던 한인 본당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

찬미 예수님! 런던 한인 본당 주임신부 이승준 도미니코입니다. 이곳 런던은 이제 시원함과 서늘함 그사이 어디쯤 접어든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본당에는 오래간만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님께서 본당을 방문하셔서 견진성사를 집전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9년 만에 있는 본당 사목 방문이라 그런지 견진성사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본당 공동체 전체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견진성사 대상자는 총 39명이었습니다. 비교적 많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본당의 지리적인 특성과 더불어 코로나19 펜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주교님의 사목 방문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컸던 까닭일까요?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절로 묻어나왔답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은 자주 접할 수 없는 주교님의 모습 때문인지 신기함과 더불어 궁금증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처해서 주교님께 강복과 고해성사를 청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흐뭇한 아빠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는 이제 약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교구장 사목 방문과 견진성사라는 큰일을 준비하면서, 3주가 마치 3달인 것처럼 길고 빡빡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본당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은총 가득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다시금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께도 전해지길 멀리서나마 기도합니다.

교구장 동정

10월 8일 사제평의회
10월 10일 사목방문
-레지오마리애, 빈첸시오회
10월 12일 사목방문-향주삼덕 선교회(용궁)

기억합시다

10월 9일 박석희 **이냐시오**
주교 24주기

교 구

10월 열린성경강좌

일 시: 10. 7(월) 19:30~ 21:30
장 소: 교구청
준비물: 성경, 필기구, 참가비 5,000원

2024년 청년연합회 성지순례

일 시: 10. 27(주일) 8:00~18:00
장 소: 원주교구 배론성지
준비물: 미사준비, 돗자리
참가비: 10,000원/ 1명
*교구 내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쉬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11. 8(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함께 하실 분은 누구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아름다운 자연과삶> 이라는 주제로 사진과 글을 공모합니다.

작품 내용 및 구성:
사진에 담긴 의미,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
소개하는 간단한 글
(혹은사진과잘어울리는성경구절)
메일- sa3119@nate.com

▶오픈카톡

기 타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일 정: 1. 3(금)~ 1. 14(화)
튀르키예, 그리스/ 495만원
1. 7(화)~ 1. 13(월)
스페인 남부/ 375만원
1. 13(월)~ 1. 24(금)
피정 성모발현지/ 475만원
1. 13(월)~ 1. 20(월)
멕시코 과달루페/ 570만원
문 의: 02-2281-9070, www.cttour.org

수 도 회 · 피 정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1차: 9. 27(금) 15:00~28(토) 13:00
-승효상 건축가
2차: 11. 8(금) 15:00~ 9(토) 13:00
-공지영 작가
3차: 11. 15(금) 15:00~ 16(토) 13:00
-김탁환 작가
장 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참가비: 9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 의: 010-6791-0071(문자)

시니어를 위한 색칠하기

제 목: 성경 속 식물 컬러링 북 색칠하기
일 시: 10. 8(화)~ 10. 29(화)
(매주 화요일 16:00~ 17:30)
대 상: 65세 이상
장 소: 안동 바오로딸 서원
회 비: 삼만 원 (책은 본인이 구입)
문 의: 010-2894-7020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모임

일 시: 10. 12(토) 14:00(그 외는 전화)
장 소: 서울 보문동, 부산 부곡동 수녀원
문 의: 루카 수녀 010-9353-1773
대 상: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단기 선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온라인)

일 시: 11. 4(월)~ 14(목) 19:00~ 21:00
대 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진 행: 실시간 온라인 교육
비 용: 10만 원
문 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센터

금요철야 기도

일 시: 매 주 금요일, 20:00~ (토) 01:00
강 사: 한연흠 신부, 김웅렬 신부 외
진 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장 소: 초정성령회관
문 의: 043-213-9103/ 010-5482-6744

안동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인 두봉 주교"
10월 17일(목) 저녁 9시

교 육

가톨릭상지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1차 모집: 11. 8(금)~ 11. 22(금)
7개 학부, 15개 모집학과
주말반 학과 모집: 사회복지과, 전기과
전산세무회계과,
드론운용정비과
야간 학과 모집: 경영과, 사회복지과,
외식창업조리과,
하이브리드자동차과,
노인건강지도과
입학 문의: 851-3021 https://www.csj.ac.kr

식품가공연구개발(밀키트) 무료 교육

일정: 10. 5(토), 19(토)/ 11. 3(일), 10(일)
(각 2일 10시간)
시 간: 09:00~ 14:30
내 용: 식품 개발 개요 및 사례,
HMR- 밀키트 실습 및 포장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노인상담기법 무료 교육

일 정: 11. 23(토), 12. 7(토) (총 2일 12시간)
시 간: 09:00~ 17:30, 09:00~ 13:00
내 용: 노인심리지원, 상담 기법 스킬 향상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2025년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남녀공학, 전국 모집(남녀 기숙사 운영)
학 과: 보건간호과, 경영금융서비스과,
카페경영과, 부사관과
특별전형 원서접수: 10. 14(월)~ 10. 18(금)
일반전형 원서접수: 11. 6(수)~ 11. 12(화)
입학 문의: 054-541-3082
경북 상주시 함창읍 소재(함창성당 옆)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고등학교

"만원의 행복"(농은수련원 위령성월 피정)

일 시: 11. 2(토) 10:00~ 16:00
주 제: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뵈었습니다.
(욥 42,5)
대 상: 누구나
참가비: 1만원
신 청: 10. 20(주일)까지 054-652-0591